

제9회 아카시아 포럼 참가기

A Report on the ARCASIA Forum 9

우리 협회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Architects Regional Council for ASIA)가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아시아건축사대회 및 아카시아토론회가 지난해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아시아건축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제9회 아카시아토론회는 JIA(신일본건축가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 건축기행 등 다채로운 행사와 연계해 아카시아회원국과 세계 각국의 유명 건축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우리 협회에서도 아시아 회원국간의 건축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김영수 회장을 단장으로 한 20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편집자주>

■ 세부행사 일정표

일 자	JIA창립10주년 기념행사 (신일본건축가협회)	제9회 ARCASIA토론회		
		시 간	세 부 일 정	
9/20(토)		09:00~12:00	아카시아이사회/교육위원	
		12:00~13:30	오찬	
		13:30~17:00	아카시아이사회/교육위원회	
		18:30~20:30	환영만찬회	
9/21(일)		09:30~12:00	아카시아이사회/교육위원회	
		12:00~13:30	오찬	
		13:30~17:00	아카시아이사회/교육위원회	
		18:30~20:30	동료파티	
9/22(월)	<JIA창립10주년기념행사> - 개회식 • 개회연설 • 시상식(1997년도 일본건축가협회, 신인상, 제1회 일본건축가협회 25년상) - 심포지엄 기조연설 "다중문화와 건축" 니콜라스 그림쇼(영국건축가) 데이 켝 순(싱가폴 건축가) 안도 다다오(일본 건축가) - 리셉션			
9/23(화)	JIA주제 포럼 1. 건축경제학 2. 정보사회와 복합문화 3. 도시개발의 철학 4. 세계화와 지방문화 5. 창조와 표준화 6. CALS와 건축 - DESIGN FORUM - 전문가 워크샵	아카시아 회기업무 "아시아 건축의 미래" 1. 고층고밀도 주거 2. 건축가 없는 아시아의 도시 3. Global Architecture 환송회		
9/24(수)	건축 탐 방			

■ 이사회

제 18차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이사회(Council Meeting)가 1997년 9월 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 Tokyo East 21 Hotel Conference Room에서 열렸다. 본 회의에서는 회원국 15개국 중 몽고만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였고, 오스트리아, 베트남, UIA대표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본 협회에서는 김영수 회장, 이정근 국제 위원장, 이근창 국제위원이 공식대표단으로, 오근석 국제위원, 이세훈 서울건축사회 회장, 김영석 협회감사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현 ARCASIA 회장 Mr. Surath로부터, 본 ARCASIA의 모임이 아시아 건축인의 새로운 틀을 만들고 서로의 기술정보 교환과 협력을 바탕으로, 20여년간 지내 온 역사에 대한 의의와 갈수록 돈독해지는 우의를 다짐하자는 개회사에 이어 초청국인 일본 건축가 협회장 Mr. Hozumi의 환영사와 UIA회장의 격려사로 개회의식을 마쳤다. 곧이어 1996년도 회의록 승인과 수정을 걸쳐 본회의 진행 절차가 논의되었다. 본 협회에서는 주관했던 ARCASIA Book Project건은 상정되었으나 4여년에 걸쳐 진행사항이 보고되었고 문제점을 회원국 상호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으로 인건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의문사항은 개별적으로 답하기를 하였다.

재정 감사보고서에서는 1996년 이월금 미화 17,455.55달러에 회원국의 96, 97년회비 30,150.79달러를 합쳐 총 47,606.24달러이고 지출은 경상비 6,280.25달러, 현재 잔액 41,325.98달러라고 보고되어 승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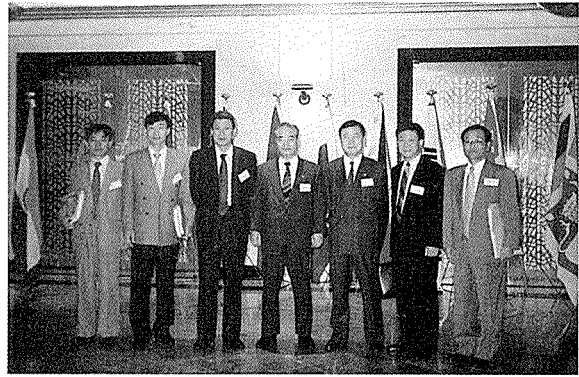
본 회의의 주요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계획

ARCASIA모임의 장래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항목이 논의되었고 그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1-1) 자금 확보: 현재 각 회원국의 재정상태를 고려 창립 이래 매년 미화500달러, 또는 200달러씩 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현재 책정된 회비는 회의운영 및 통신비 정도를 충당하는 정도이므로 회비의 인상 또는 아시아 Jornal에 수록하는 작품에 사용된 자재의 제조업자로부터 찬조 등을 통하여 재정 확보의 필요성이 검토되었고, 추후 말레이시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다음회기에 상정, 검토 승인하기로 하였다.

1-2) 건축교육: 아시아 정서에 맞는 건축교육의 발전과 전문인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이론과 실무를 결합시키는 방법과 건축설계 능력을 배양시켜 선진국과의 경제력 확보를 해야 함이 시급한 문제임이 지적되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Tay Kheng Soon(싱카폴)가 회원국의 건축교육의 실체를 분석, 기본방향을 제시키로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아시아건축에 대한 지침과 교육인증제도의 기초를 마련하며, 각 회원국에서는 건축교육을 이수한 자의 고용확대를 위한 연구를



아카시아 포럼에 참가한 협회 대표단

제시하여, 현재 홍콩건축사협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건축교육 제도 개선 계획에 상호 정보교환하여 적극 참여키로 하였다.

1-3) 건축가의 지위 향상: 아시아 국가에서 최우선으로 문제되고 있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고밀도 최적 환경의 주택설계를 위해 기술방안을 적극 연구해야 하며, 그와 같은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또한 회원국내의 건축설계경기를 체계화하여 운영해야 함이 논의되었고, 이는 건축가의 창조적인 활동이 인정되어 전문인으로서의 지위향상과 그에 대한 보수가 안정되어 양질의 학생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발전시켜야 함이 강조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추후 설계경기의 방안의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례발표 등을 통해 기틀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1-4) GATS: 시장개방과 더불어 회원국에 잠식하고 있는 선진국 기술에 관하여 대처방안이 논의되었다.

현재 GATS하에서의 건축설계업무에 관한 진행상황을 Working Group을 편성하여 아래의 주안점을 골자로 논의키로 했다.

- ① 상대국 건축가들과의 상호이익을 취하는 방법 제시
- ② 실제 실무처리 방안제시
- ③ 건축설계업을 무역업으로 고려하는 모순점 강조
- ④ UIA의 윤리규약에 ARCASIA 결의문 삼입
- ⑤ 실제 기술전수의 정확한 구분과 이해
- ⑥ 각 회원국 대표가 채택한 ARCASIA결의문에 대해 각 정부가 수용하도록 적극 권장

설계용역에 관한 ARCASIA회원국의 "국제윤리규약"은 1995년 싱가포르회의에서 결의문으로 채택되었으며 상기 사항의 분석 검토를 위하여 필요인원의 선정과 자금의 지원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채택된 결의문을 회원국 해당 정부기관에 보고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였다.

1-5) 장기 계획: 향후 6개년 계획을 회원국의

입지를 고려하여 방향과 목표로 설정하는 계획서를 말레시아 P.Kasi가 작성하기로 하였고 상기 계획은 본 회의에 초안으로 제출되었다.

2) ARCASIA Resource Center

ARCASIA모임의 역할과 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논의되었고 말레시아 주관하여 기본틀을 작성하여 Web Page를 자체비용으로 작성하기로 하였고 그 이름을 "ARCASIANET"를 잠정 결정하였다.

회원국의 소개란은 Format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하고 그 시점은 말레시아에서 계획 수립되는대로 통보하기로 하였다.

3) Architecture Asia

분기별 발간하기로 한 아시아 건축잡지의 창간호가 말레시아 건축사협회의 노력으로 빛을 보게 되었다. 창간호에는 협회에서 추천한 2개의 작품이 수록되었고 각 회원국에게 30부씩 무료로 제공되었다. 더 필요한 경우 송금료를 제외하고 미화 7불씩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4) ARCASIA Competetion Gudeline

아시아지역의 건축설계경기의 Gudeline을 정하여 아시아 지역의 건축특성을 살리고 회원국이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본 Gudeline의 작성은 말레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중국의 대표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작성 다음 회기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5) ARCASIA Fellowship

ARCASIA창립이래 본회를 위하여 지대한 공헌이 있거나 전임 회장, 부회장직을 역임한 회원국의 대표단으로 구성하기로 1996년도 이사회에서 결정한 ARCASIA고문 모임으로 첫 회의를 본 회의 전날 Hong Kong의 Ronald Poon의 ARCASIA의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토의를 하였다. 현재 Member로는 48명이며, 본 협회에서는 송기덕 회원, 김지덕 전국제위원장, 이정근 국제위원장이 임회하였다. 본 모임은 이사회와 별도로 운영하기로 하고 토의내용과 제반 회계는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모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ARCASIA 정관의 수정 또는 매매한 부분의 유권해석을 해주기로 하였고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대표단과 동격으로 대접하기로 하였다.

6) ARCASIA Handbook & Checklist

ARCASIA 기구의 조직과 행사 및 회의진행의 절차, 회장단의 임무 및 역할과 책임, 기타 부속 교육위원

회, 학생멤버리, ARCASIA Award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명기한 Handbook과 Chcklist를 좀더 현실성 있게 수정하였다. 주요 수정내용은 모든 관련서류는 Fellowship Member와 전임 회장단에게도 배부하고 총회의 세부사항을 Shecklistion 열거하지 않고 별첨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Forum의 연사 선정기준을 주최국 위주가 아닌 전 회원국이 참여토록 보완했으며 학생작품에 대한 시상내용을 명문화하여 보강하였다. 또한 모든 회의록 및 기록내용은 말레시아에서 주관하고 있는 Archives에 보관, 관리, 유지키로 하였고 입회절차에 관하여서는 최소 50명 이상의 건축가를 보유한 나라만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특수 사정인 경우는 이사회의 표결을 득하면 될 수 있는 완화조항도 삽입하였다. ARCASIA의 Zone구성을 재편성하여 필리핀이 Zone "B"에 배치되었고 본 협회는 원 구성대로 Zone "C"에 속하게 되었다.

7) ARCASIA Award Program

총회(ACA)에 시행하던 본 시상을 총회시 많은 행사가 겹치게되므로 1999년 Forum이후에는 Forum이 개최되는 홀수해에 시행하기로 했다. 시상 대상 Catagory가 현재 주거, 산업, 전통 3부분으로 되어있으나 확대하여 더 많은 부분을 하기로 제안이 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다음 회기에 상정키로 하였고 차기 심사위원은 Zone "B"와 "C"에서 각 1명, 아시아 지역권이 아닌 곳에서 한명을 선임하기로 하고 각 회원국의 추천을 받아 처리하기로 하였다.

8) UIA 회의

국제 건축가 모임인 UIA에 입지 확보와 결의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ARCASIA 에서 공식 대표단을 파견키로 하였고 대표단은 현 회장 또는 전임회장으로 하기로 하였다. 회의내용과 본 회의 토의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Concl Metting에 공식 보고키로 하였다.

9) 1999년 Forum 개최지 선정

일부 회원국에서 국제회의의 참석이 매 3년마다 2차례나 되어 (UIA회의는 매 3년마다 개최됨) 경비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UIA 총회시 비공식의 이사회만 개최하는 일이 상정되었으나 운영체계의 변화에 따른 다각적인 검토후에 수용키로 하고 본 회의에서는 보류키로 하였다. 1999년 FORUM 후보자로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거론되었으며 방글라데시가 한국의 거취에 따라 개최하기로 하였다.

국제 행사를 치르는 일본건축가협회의 용의주도한 사전계획에 의해 행사장에는 최소 인원(2~3명)을 상주시켜 회의를 번거롭지 않게 진행시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 사회의 안전자체는 아시아 건축인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며 일정한 규범을 정하는 것이므로 사전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협회의 의견을 개진하여 참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UIA회장과 AIA회장 등이 참석하여 회의진행을 주의깊게 참관하였다. 이와 관련 국내의 여건을 조정, 국제회의에 한 목소리로 대처하는 점진적인 통합운영이 바람직해 보인다. <글: 이근창/본 협회 국제위원>

■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 (ACAE)

이번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 (ACAE)는 1997년 9월 20일~21일 이틀간에 걸쳐 일본 도쿄시의 EAST 21호텔에서 15개국중 몽고와 파키스탄을 제외한 13개국의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회의는 ACAE 의장인 싱가포르 Andrey Tau씨가 개회사와 함께 한국(KIRA), 방글라데시(IAB), 홍콩(HKIA), 인도(IIA), 인도네시아(IAI), 일본(JIA), 말레이시아(PAM), 필리핀(UAP), 싱가포르(SIA), 스리랑카(SUA), 태국(ASA), 중국(ASC), 마키오(AAM)등 많은 회원국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건축교육위원회(ACAE)회의에 한국대표로 우리협회의 국제위원 김지덕위원이 참석했고, 참관인으로 백경국국제위원이 참석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IAD)에는 Dr.K.Shabbir Ahmed, 홍콩(HKIA)에는 Edward Shen, 인도(IIA)에는 Gurunath Dalvi, 인도네시아(IAI)에는 Budi A. Sukada, 일본(JIA)에는 Takefumi Aida, 말레이시아(PAM)에는 Parid Wardi, 필리핀(UAP)에는 Yolanoad Reyes, 싱가포르(SIA)에는 Andrew Tau, Milton Tan, 스리랑카(SLIA)에는 Mihinoce Keerthiratne, 태국(ASA)에는 Vira Sachakul, 중국(ASC)에는 Loi Sai Hin 등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ACAE)회의에서 토론된 주요의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교육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관심

① 건축교육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있어 어려움 있음.

②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의 회의를 할 필요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어 유감임.

2) 건축교육위원회 조직의 개편

① 각 회원국 회원 개개인들과의 연속적인 접촉관계를 유지하여 건축교육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해 주기를 독려함.

3) 건축교육위원회에 2가지의 Issue제시

① 각 회원국들은 건축교육위원회를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② 각 회원국들은 건축교육위원회를 통해 무엇이 성취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4) 건축교육위원회에 제시된 새로운 안전내용

- ① 경험의 공유
- ② 건축교육에 있어 아이디어의 교환
- ③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④ Networking

⑤ 새로워진 교과과정 내용의 공유

⑥ 건축교육에 있어 협동심을 강화하기

⑦ Setting up Website

⑧ 교수진의 향상

⑨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논의

⑩ 예산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⑪ 중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어서 또 성취할 것인가?

⑫ 실무와 교육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

5) 앞으로의 건축교육위원회 회의 순서 개편

6) ACAE Business Meeting 형식

첫날	오전	ACAE Business Meeting
	오후	ACAE 토론회 (Business Meeting)
둘째날	오전	에서 결정된 안전에 대해)
	오후	아카시아 이사회 참석, 보고

① 참석자: ACAE 회원과 대표회원만 참석

② 안건:

- a. 회의 의사록 및 문제의 제기
- b. 각 회원국의 보고서
- c. 주제에 대한 토론과 다음해의 토론회에 있어서의 조직과 목차

7) 토론회 회의 형식

① 토론회 주제 결정

② 토론회의 정보중계자 선정

<정보중계자의 역할>

- 각 회원국으로 부터 정보를 수집
- 정보분석과 다음해에 개최를 위해 준비
- 정보중계자는 싱가포르의 Milton Tan교수로 결정됐다.

③ 각 회원국은 학교학생들이나 교육전문가들을 토론회의에 초대하도록 하며 비용은 각자 회원국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④ 토론회의 전문가를 통해 문제와 논점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것

⑤ 1998년 스리랑카에서 개최될 토론회의 주제 선정

• 주제는 "21세기의 도전에 직면하여 건축가 역할의 개정의" (Re-Defining the Role of Architect to Face the Challenge of the 21st Century)

• 위의 주제에 대해 토론할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주제를 각 회원국에서 제시했다.

- 건축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진의 훈련
- Research & Development
- 건축교육의 연상으로서 건축가의 지속적인

교육

- 새로운 학교교육
- 교육의 전문화
- Information Technology

7. Networking

8. 건축교육 과정(Curriculum)

• 종국적으로 각 회원국에서 투표한 결과 위의 소주제중에서 건축교육과정 (Curriculum)이 다음 토론회 주제로 결정됐다.

⑥ 일정예정표(다음 사항을 정보중계자인 싱가포르 Milton Tan 교수에게 보내도록 함)

• 1997년 12월 25일까지 각 회원국의 학교 교육과정(Curriculum)에 대한 데이터를 완료 할 것.

• 각 회원국에서는 Issue 내용들을 정리한 후 각 회원국으로 1998년 7월까지 보내줄 것

• 1998년 7월에 Milton Tan 교수로부터 받은 내용에 대해 각 회원국은 예비 응답을 9월까지 정리하여 다시 TAN 교수에게 전달할 것

• 1998년 11월에 스리랑카에서 토론회 시작

이번 건축교육위원회에서는 시종일관 어떤 주제로 논의 되었다기 보다는 앞으로의 교육위원회를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각 회원국 실리적인 도움과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절차와 앞으로의 할 일들을 정립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실질적으로 국제회의라는 것이 각 회원국의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 주제로 경제성, 사회성, 문화성 등의 차이로 해서 그러한 시각에서 문제를 같이 찾는다는 것이 정말 막연한 것이다. 특히 매번 회의에서도 그와 같은 분위기를 얻을 수 있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보고 공동의 ISSUE를 찾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노력이 역력히 보여졌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시대는 국제화 즉, 시간의 공유, 정보의 공유, 상소의 공유 등으로 발전되고

있는 시점에 건축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감시하고 우리의 위기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 아시아의 건축사회원들이 21세기에 대처 할 수 있는 현주소를 찾아가기로 같은 목소리를 낸 의의있는 국제회의였다.

(글: 김지덕 · 백경국/본 협회 국제위원)

■ 제9회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포럼

일시: 1997년 9월 22, 23일

장소: 일본 동경 Tokyo International Forum

주제: Architecture of the Future in Asia

언어: 영어, 일어

1. 포럼의 구성

본 행사가 일본건축가협회 10주년 기념행사와 겹쳐서 개최되었으므로 첫째날은 아카시아 포럼과 JIA 대회를 공동으로 치루었고 둘째날에는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첫째날의 행사와 둘째날의 Arcasis Work Session의 진행사항을 요약한다.

(9월 22일(월)의 행사일정)

• 개회식

환영사 ... 10주년기념 대회실행위원장 군 사사끼

대회사 ... JIA 회장 노부오 후즈미

축사 ... 아카시아회장 수라 위크라마싱

일본 왕세자 다카마도

건설장관 쥬도무 가와라

UIA회장 사라 토펠슨

시상 ... 1997년도 일본건축가협회 신인상

제1회 일본건축가협회25년상

• 기조강연

주제 ... 다중문화와 건축

좌장 ... 히로유키 수주끼 교수

연사 ... 영국 건축가 니콜라스 그림쇼

싱가폴 건축가 테이 캥 순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

• 저녁 리셉션

(9월23일(화)의 행사일정)

• ARCASIA Work Session

주제 ... 아시아 건축의 미래

부주제 ... 고층고밀도 주거

건축가없는 아시아의 도시

Glocal Architecture

환송연

- JIA Theme Forum
건축경제, 정보사회와 다중문화, 도시개발의 철학, 세계화와 고유문화, 표준화와 창조성, CALS와 건축
- Design Forum
30건축가에 의한 100인 회의
- Professional Work Shop
실내환경과 재료, 동경국제포럼의 신기술, 지속가능한 설계 등

2. 개막식 및 기조강연

2.1. 개막행사

포럼행사를 UTA 주재하에 국제현상에 부쳤던 동경포럼 건물에서 개최함으로써 일본건축의 국제적 수준을 널리 홍보하며 동시에 과시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일본 왕세자 부부가 연단 중앙에 자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개회사와 축사후에 있는 일본건축가협회 1977년도 신인상의 시상식이 있었는데 수상자 3명이 모두 40대로서 조로하기 쉬운 우리 건축계의 풍토를 감안하면 신선하고 교훈적이었다. 올해 처음 제정한 일본건축가협회 25년상에는 1956년에 준공된 가가와현의 문화회관이 선정되었으며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모두에게 상이 주어졌고 설계자는 이미 작고하여 그의 아들이 대신 수상하였다.

2.2. 기조강연

수주끼 교수는 발제강연을 통해서 서구화가 바로 근대화로 여겨졌던 오류를 지적하는 동시에 동양 삼국에서 표방했던 동로서기의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그러나 가치관을 분리한 채 기술을 수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문명은 철학적인 배경이 없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건축에 있어서도 기술과 디자인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자문하고 있다. 기술의 세계화와 더불어 문화적인 정체성은 상실되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화의 사회에서 이 과정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술은 선적인 과정속에 보편화의 길을 따르지만 건축은 각각의 장소마다 고유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유문화의 건축적 특성을 존중하면서 공동의 미래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니콜라스 그림쇼는 리오 선언에 실린 지구촌의 인간환경의 보존에 대한 주제를 재 음미하였다. 그래서 그는 건축행위에 있어 변화에 대한 유연성, 재료의 재활용과 재회전,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시라는 인공환경은 자연환경을 품어야 살만한 곳이 되며 녹지공간이 공적인 수준과 사적인 수준에서 다같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보통신의 첨예한 발달이 도시공간의 패턴을 바꾸어 놓을 것이며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살게 된다면

이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해서일 것이다. 공업생산에 의해서 선진국이 부를 축적하던 시기는 지나고 있으며 용역과 아이디어 그리고 창조적인 품목의 교환과 판매에 의해서만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장래에는 개발국가와 저개발국가에 상호교류와 전문기술의 이양을 통해 지구환경의 보존과 돌봄이 실현되리라고 낙관하고 있다.

데이 킹 순은 인간의 행동을 실제로 지배하는 거대한 억압된 저장고로서의 무의식 영역을 인간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열쇠를 간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간의 억압된 영역을 회복하려는 쉽지는 노력은 불균형의 상태를 그의 존재론적인 조건으로 결정지우고 있다. 서구의 근대주의는 15세기에 이미 이성과 도덕 및 미학의 자율성을 제도화함으로써 인간의 에너지를 분출하게 하였다. 17세기로부터 발원하는 생태문화적인 혁명은 물질의 대량 소모를 촉발시켰다. 물질소비의 민주주의는 세계의 자원을 빠르게 고갈시키고 있다. 후기 근대라는 과도한 개인주의와 주관주의의 산물은 공업적 근대주의의 기술관료적 심성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함에 있어 생을 충만하게 하며 자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유기적 근대주의라는 가치개념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모든 전통문화는 물질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근대와 전통이라는 이원주의의 수궁은 대중요법일 뿐이다. 인간의 물질에 대한 소비욕구가 소진되기전까지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인다. 중심성을 이탈한 후천적인 자아는 소비욕구의 충족과 가식을 통해서 보상받으려 한다. 예고는 이탈한 자아의 의식이다. 불교사상과 도가사상은 예고의 버림을 강조한 반면 서구의 가치관은 예고의 진작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의 건축설계문화는 인간의 예고를 진작하는 패션산업과 보도매체가 부추기는 살롱건축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한다면 물질적으로 불리한 사회에서의 물질소비의 충족도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물질적인 발전의 주 도구로서의 도시의 존재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물질소비 욕구가 소진된 후에야 도시는 해제되어 사람들은 자연속으로 흩어져 살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 전까지 도시는 사람이 그 안에서 살기위한 기계일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도시는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는 1989년에 그가 이끄는 싱가포르 팀이 제안한 바 있는 열대 도시개념을 소개하였다. 여기서 그는 수직 녹지대 형성과 교통유발요인의 최소화를 통해서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소비를 줄이며 지표의 침식을 최소화하는 고밀도의 도시건축 형식을 제안하였다.

안도 다다오도 앞의 연사들과 같이 자신의 작품의 예술적인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연친화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1995년 그의 작품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고베 지진 때에 화를 면한 그가 설계한 건물 주변의 변동상황을 보여주었다. 심하게 파괴된 그 지역의 환경의 복구를 위해

그가 주도하고 있는 녹지대 그물망 운동의 계획과 실천사항을 보여주었다.

2.3. 저녁 리셉션

저녁 리셉션은 도쿄 포럼 홀 B에서 칵테일 형식으로 해외 참가자와 일본건축가협회 회원들이 같이 어울리는 행사였다. 아카시아 포럼9의 후원자가 BHP Steel Asia이므로 연회행사에는 항상 그 회사대표의 인사가 곁들여진다. 일본건축가협회장, 아카시아회장 및 동경도지사의 인사말이 있었고 초빙된 미국 건축사협회장 Raj Barr-Kumar씨의 치사가 이어졌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관서지방의 민속춤 공연이 있었다. 춤 행렬에 참석자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3. ARCASIA Work Session

3.1. Work Session 1: 고층고밀도 주거의 과제

좌장 ... 이또 시게루 교수

연사 ... Chung Wah Nen(홍콩)

후루야 노부아끼 교수

김진애 박사

구라자와 쓰스무 교수(사회학)

Work Session1 담당자인 가토 도모요시는

이 토론회 회기1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발제하였다. 즉 아시아에는 높은 경제성장의 파도가 몰아쳤고 도시화의 속도는 건축의 물량을 증대시켜 고밀도 건축은 전통적인 시가지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또한 대다수의 도시민들은 고밀도의 아파트에 살 수밖에 없으므로 고밀도 건축환경은 생활인의 심리와 생체적인 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수 있다. 고층고밀도 생활환경은 지속가능한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으며 사람들의 결속을 보장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Chung Wah Nan씨는 고층고밀도 건축환경의 표본적인 도시라 할 수 있는 홍콩에서 중국적인 생활철학의 배경과 사회적인 면들을 조감하였다. 후루야 교수는 정보화시대의 현상으로서 정시의 직접접촉의 의미가 변질되었음을 중시하고 도시와 사회의 조직이 고정적인 것으로부터 그물망 모형으로 전이하고 있음을 환기시켰다. 가구와 도로 및 불편한 하부구조와 개개의 건물들로 구성되는 도시의 개념은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합적인 3차원의 기능구조를 가지는 새로운 도시의 모형이 실현되리라 예고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개념에 따라 고밀도의 수평적 구조를 가지는 동경에 1천미터 높이에 1천 헥타르의 면적과 1천년 존속을 가상하는 이중나선형의 도시건축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구조물안에서 10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할 것이며 30만명 이상의 사람이 취업활동을 할 것이다. 이 모형의 도시에서는 자연의 에너지

가 최대한 활용될 것이며 생산과 소비 및 폐기과정이 복합적으로 증점된다.

김진애 박사는 한국의 도시들도 다양한 내용으로 고층고밀도의 문제에 당면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밀도의 개념이 단순한 물리적 수의 양적인 것에 머무른다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밀도는 그것이 논의되는 지역의 문화와 환경계획의 특수성이 깊이 고려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김박사는 자신이 기획한 바 있는 삼성고층타워계획안과 부산 해안도시개발 계획안을 소개하였다. 도시사회학자인 구라자와 교수는 일본에서의 공공 사회주거의 발전과정을 예로 들면서 주택단지 계획에서의 새로운 근린주구체계와 공동체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건물의 유형과 주민들의 사회성 및 접촉빈도 등을 예로 들면서 인간의 물리적 환경에의 적응성과 건축가들의 물리적 환경결정론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3.2. Work Session 2: 건축가 없는 아시아 도시

좌장 ... 이와사기 순주께 교수

연사 ... 호사카 미쯔히코 교수

Anzorena Eduardo Jorge(알젠틴)

P.K.Das(인도)

시게무라 쓰도무

좌장은 30년전에 이미 제기된 바 있는 건축가 없는 건축이라는 주제를 상기시키면서 오늘의 도시상황에서 상당한 부분이 건축가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속함을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도시민의 생활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이 부분에 전문 건축인들의 관심과 노력이 투여되어야 함을 환기시켰다. 저소득층 주거개발 전문가인 호사카 교수에 의하면 아시아의 주요 도시인구의 20~50퍼센트가 슬럼지구에서 산다고 한다. 오랫동안 이 부분은 공식적인 체계의 통제를 벗어난 비공식적인 건축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일고 있는 도시경제의 세계화와 사회주택 정책의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는 여러 이익집단의 참여를 고무시키고 있다는 것이며 건축전문가들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가 주도한 바 있는 스리랑카의 슬럼 개발경험을 소개하였다. 이에 대조적으로 안조레나 씨는 소위 불량지구 주민들의 자력에 의한 건축행위를 공식적인 부문이나 전문가들이 상의하달식으로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건축행위는 최소한의 자원으로써 그들의 생활에 적합한 최대의 효율을 가지는 어느 전문가 집단도 해낼 수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속가능하고 투자효율적인 개발의 방법은 도시 저소득층이 스스로 그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기존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 가능성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물적자원이며 주민 자력개발을 돕는 방법은 그들의 실험과 상상식 과정을 고양하기 위

해 가능한 유연하고 비공식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스 씨는 그가 체험한 바 있는 몸바이 불량 지구 개발의 예를 들면서 건축의 과정에 대한 교훈을 지적하고 전문가들의 실무행위가 관행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을 발견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데오로기가 건축의 설계와 미적인 관점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생활공동체 건축의 과정은 그 기획과 계획이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건축의 민주화라고 정의하고 일반 건축과정의 새로운 방법적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시게무라 교수는 2차대전후부터 일본의 도시 중심부에 들어선 목조아파트에 대해 검토하였다. 도시화와 더불어 젊은 노동력이 도시에 집중하자 그들의 주거수요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도시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노후를 위한 저축육구가 맞물려서 주택의 빈공간에 목조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동경과 오사카 같은 대도시 주거의 30퍼센트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유동인구가 밀집함으로써 주거지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고 위생과 재난, 구조의 취약성 등의 문제로 인해 반 정도가 콘크리트 구조의 현대식 아파트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거가구의 10퍼센트 정도가 목조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현상은 싼 방세와 도시중심부의 위치 등으로 인해 다른 어떠한 주거형식도 지방으로부터 온 젊은이들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말해준다.

3.3. Work Session 3: Glocal Architecture

의장 ... 나가시마 고이찌

좌장 ... 이와무라 가쥬오

연사 ... Jumsai Summet(태국)

니시무라 유끼오 교수

Tay Kheng Soon(싱가폴)

나가시마 씨는 이번 아카시아 포럼의 의장이기도 하다. 그는 이 주제를 이미 작년의 바르셀로나 UIA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일본건축가협회 UIA Work Program 'Architecture of the Future' 의 간사국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포럼을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1999년 북경에서 열리는 UIA 대회에서 진전된 내용을 개선하려고 의도하고 있다.

그가 이 주제를 전개하는데 있어 Glocal이란 조어가 암시하듯이 세계적 차원(Global)과 지역적 차원(Local)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미래의 건축을 창조해 낼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일반성과 지역차원의 다양성이 상호 교류해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써 세계차원에서는 생태적인 균형을 취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문화의 영역에서는 전통과 연속성에 대한 재해석과 재정의의 통해서 세계성을 띄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담보하는 건축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 것이다.

좌장 이마무라씨의 주제요약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식민지배, 빠른 공업화와 근대화, 기술과 정보의 세계화 등의 경험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동반한 것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편리함 대신에 문화의 고유성이 희박해지고 온통 높은 에너지소비에 의존하는 천편일률적이고 개성없는 도시환경과 건축물의 탄생이다. 경제적 강화와 더불어 다시 찾게되는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고유한 유산과 정체성을 재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지구의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생각할 때 환경문제를 세계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동거주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공감대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건축환경에 관한 세계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의 관점이 다 같이 개선되어야 할 줄 믿는다.

줌사이씨는 지구상의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 현상에 주목하며 특히 아시아의 도시들에서의 인구증가와 거대도시화 현상 고층고밀도화하는 생활환경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할 바는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며 도시의 녹지화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건축은 이의 시적인 감성을 되찾아야 하며 고대의 우주적 조화를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니시무라 교수는 아시아의 각 도시 및 그 인구가 가지고 있는 생활과 관련된 각종 통계치들을 광범위하게 비교함으로써 아시아의 도시의 상황을 파노라마식으로 펼쳐보였다. 그리고 각 나라의 지역적 환경질서에 대한 고유사상과 현대의 정보화 사회의 가치들이 모자이크되어 혼재하는 상태를 보여주었다. 아시아의 각국은 역동적으로 현대화의 과정을 거치는 속에서 많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각각 특성을 달리하는 문화의 다양성이 장래의 건축환경을 창출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리라는 것이다.

테이캥 순씨는 현대 아시아의 계층구성에 있어 중산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지만 정보의 소유면에서는 매우 편중되어 있어서 또다른 폭풍의 위험이 상존함을 상기하였다. 세계의 정신사에 있어서 물질주의와 반물질주의 흐름은 이즈음에 와서 상호 교차하며 서로를 중화시키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인류의 도시환경 형성에도 어떤 실마리를 잡게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3.4. 환송연

일본건축가협회에서 환송연을 가졌다. 소재 건물은 UIA 4지역을 대표하는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렌수즈끼가 설계한 건물이라 하는데 그가 꼬르뷔제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에서인지 그러한 체취를 건물에서 느끼게 한다. 회원부인들이 기모노를 입고 고토라는 전통악기를 연주하며 다

도를 시현해 보이고 차를 대접하였다. 부폐식 식사가 곁들여 지고 이어 각국의 장기자랑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가부끼의 일부를 시현해 보였으며 우리 한국대표들은 회장을 중심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와 민요 '뱃노래'를 합창하였다. 한국대표단이 수적으로 우세하고 단결도 잘 되었다. 그러나 장기자랑의 상은 인도에게 주어졌다. 아카시아 회원국 뿐 아니라 읍저버로 참석한 베트남, 호주, 초빙된 UIA 관계자들, CAA대표 등도 동참하여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막을 내렸다. JIA 10주년을 축하하는 뜻에서 해피 버스데이를 합창하였다. 일본건축가협회장 부인이 손수 구운 일본과자 한 상자씩이 각 대표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모든 행사의 부산한 면을 전혀 노출시키지 않으며 간결한 배경을 만들고 음식이나 선물 등이 과하지도 않으면서 예의를 갖추고 조용히 매끄럽게 그리고 배움의 장이 되도록 진행하여 무사히 마친 일본사람들의 연출력이 돋보였다. 아카시아의 각 회원국은 앞으로 주관하게 될 행사의 모범을 예시받은 결과가 되었다.

〈글: 이정근/본협회 국제위원장〉

■ ARCASIA Forum 9 건축탐방

1997년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도쿄에서 「Arcasia Forum 9」와 「제10회 일본건축사(JIA)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아시아 15개국 회원국이 모여 건축문화 창달과 미래건축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 및 우정을 나누는 아시아 건축사대회에 우리 대표단(KIRA)은 바쁜 업무도 미루어 단체 Arcasia Council meeting과 Forum 9을 위하여 그동안 정리 준비해둔 자료를 가지고 도쿄로 향하였다. JIA에서는 다양한 행사 Schedule과 빈틈없는 행사준비를 마치고 각국 대표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대표단은 9월20, 21일 양일간 Council Meeting에 참석하였고 Forum을 통하여 Scope of High-rise High-density Living, Asian Cities Without Architects 및 Scope of Glocal Architecture 등을 주제로 다양한 내용이 자국 건축사 및 Arcasia 회원국 회원들과 함께 토의진행 되었다. 공인된 석학들의 열띤 주제발표와 토의가 진행되면서 포럼행사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Arcasia Forum 9의 마지막 행사로 JIA에서는 도쿄내의 다양한 건축물을 테마로 건축기행이 준비되어 있었다.

우선 각 테마별로 건축기행 내용을 살펴보면

F-1 Sumida와 Kanda강을 따라가며 건축물 탐방을 하는 크루즈여행

F-2 문화유산 건축물과 산업건축물 탐방코스

F-3 Rainbow Town 반문과 Metropolitan

Water Front Subcenter 탐방

F-4 TOKYO내 주거 건축물 방문코스

F-5 환경 친화적 건축물 및 도쿄전력사옥 탐방 등 다섯가지 테마별로 건축기행이 준비되어 있었다.

JIA에서 테마별로 준비한 다양한 건축기행 프로그램은 회원국은 물론 자국 건축사에게도 유익한 건축기행이 될 것이며 차후 대한건축사협회(KIRA)에서도 Forum을 개최할시 유용하게 참고가 될것임이 분명하다.

아직 도쿄의 지리가 밝지 못하고로 도쿄에서 JRE 설계실에 근무하는 한국인 Mr.황의 부언적 설명을 듣고 우리 회원들은 F-3 건축기행을 선택하였고 또다른 몇몇 회원은 F-5 코스를 선택했다.

오전 9시 2대의 버스에 F-3 건축기행 참가자를 싣고 TOKYO International Forum을 출발하였다. 참가자 중에는 자국 건축사와 아시아 회원국 회원이 합당한 관계로 영어 해설팀과 일본어 해설팀으로 나뉘어졌다.

Rainbow Bridge를 건너며 바다를 가로지르는 장대한 토목교량 구조물을 주의깊게 관찰한후 우리 일행은 Fashion Town에 내렸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도시락을 들고 Fashion Town 내부로 들어가자 중앙광장에는 8층 높이의 천장에서 폭포수가 쏟아지고 있었다. 안내 팸플릿을 보니 주변 조명과 폭포수가 이루는 야경이 일품이었다.

8층 Show Room을 둘러보며 산뜻하게 마감처리된 가구 Display에 눈길이 끌렸다.

Fashion Town에서 Tokyo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일명 Big Sight)까지는 연결된 Bridge를 통하여 Exhibition. Hall에 들어섰다.

1996년 4월에 개장된 국제전시관은 대지면적 73,000평, 건축면적 43,000평, 연면적 70,000여평으로 입구에는 역피라미드 형태를 조합 구성하여 8층 높이의 Main Tower가 웅장한 자태로 서있었으며, 상부층에 1만석을 갖춘 국제 회의장을 배치해 놓았다.

전시장은 East EXH. Hall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 복도 길이가 600m이상이나 되어 Moving Way가 보행자 편의를 돕고 있었다.

전시관은 9m×9m 모듈을 택하였으며, East EXH. Hall은 90m×90m 전시관을 조합하여 병렬구성하였다. 대규모 건축물인지라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둘러 보았다. 직선과 사선의 만남, 곡선과 곡선으로 구성된 형태미 등 건축의 구조미와 기하학적 건축미가 돋보이는 첨단 전시시설로 건축계획시에는 배치형태나 해안이 근접하여 재료마감 처리의 문제 등 설계할 당시의 고충들을 직접 건축계획에 참여하였던 건축가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다.

다음 행선지는 후지 TV 방송사 사옥 견학이

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미를 갖춘 후지 TV 방송사 사옥은 Rainbow Town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고속 엘리베이터로 전망대에 올라 오전에 지나온 Rainbow Bridge와 도쿄 시내의 스카이라인을 전망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적 배려가 잘되어 있었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건물 정면에 놓인 검은 대리석으로 만든 분수는 말없이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다.

바로 인접한 곳의 도쿄 Beach Deck에 도착하여 전문상품판매점을 둘러보았는데 목재를 마감재료로써 현대건축물과 접목시킨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마지막 견학 건물인 도쿄 현대 미술관으로 직행하였다. 어느덧 해는 서녘에 걸쳐 있었고 미술관에 도착하니 트러스형 갤러리가 첫 눈에 들어왔다. 구조미가 돋보이는 갤러리를 통하여 전시실로 들어서니 온화한 천정조명시설로서 전시실 분위기가 전시작품의 격을 높여주고 있었다.

전시관을 나서자 어둑해진 도쿄 시내에 하나둘씩 가로등이 켜지고 차들은 어둑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가에 기대어 도쿄시에 우뚝 서있는 현대 건축물을 머리속에 그려가며 우리것과의 건축적 접목을 생각하여 깊은 상념에 잠겼다.

〈글: 오근석/유진종합건축사사무소〉

■ Tokyo 테마 건축기행 F-5편

「ARCASIA Forum 9」 3일째날인 9월 24일은 주최측이 준비한 F₁, F₂, F₃, F₄ 그리고 F₅ 코스의 건축 답사 Program에 따라 움직이는 날이다. 나는 F₅를 선택하였지만 F₅ 내용에 대하여 사전지식이나 주최측의 설명이 없어서 충분한 이해가 없었다. 하여간 까마귀소리를 뒤로하고 주최측이 준비한 버스에 올랐다. 이곳에서는 까마귀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아마도 일본의 환경친화적인 정책의 한 단면이 아닌가 한다.

첫번째 답사건물은 「Thermal House」라는 프로젝트로 냉방 및 난방은 태양열을 이용하고 히드레물은 빗물을 저장하여 쓰거나 지하수 물을 사용한다는 집주인의 설명이 있었다. 계획적인 측면보다는 Energy Saving 측면에서의 접근이었다.

두번째 답사건물은 Ishibash Tokugawa and Associates가 설계한 「Yonezowa Koki Headquarters」로 건물의 개념은 첫 번째 방문지와 같았으나, 냉방은 천정에서 하고 난방은 바닥에서 한다는 관리자의 설명이 있었다. 이 건물 역시 계획적인 측면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생각했다.

세번째는 방문지는 Setagaya Ward+Ichiura Planners & Architect가 설계한 「Setagaya Business

Square」로 노인과 저소득 및 연금수혜자 등을 위한 연립주택 단지이다. 단지내에는 5개동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동의 독립성을 강조한 부대시설 조경, 각동과 각동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brige, 자연스런 단지내 도로, 산책코스 등 계획적인 측면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그 이점을 거주자에게 베풀어 준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풍력계를 이용한 전기발생장치(초속 2~3m 이상이면 전기발생이 가능하다고 함), Solar 시스템, 빗물처리 시스템, 옥상녹지시설을 이용한 채소재배 등 우리 건축가는 모든 시스템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그들의 노력과 건축주의 이해가 어렵지만 하다.

점심식사후 네번째 방문지는 Nikon Sokkoi가 설계한 「Tokyo Gas Earth Port」 건물을 방문하였다. 도르레벨을 이용한 건물배치, 일본의 전통적인 선을 도입한 메스 계획, 계단과 조경을 이용한 자연스런 어프로치, 공간의 자연스런 변화유도, 일반적인 사무실 구획을 넘어서 평면계획, Outdoor Space와 Indoor Space의 개념이 교차하는 계단, 날을 것 같은 옥탑 지붕선... 설계의 기본개념과 목표는 'Energy Saving, Long Life & Amenity' 라는 설계자와 설명이 그대로 부합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서도 계단실 상부에 까마귀가 앉아서 즐거운 듯 소리를 내고 있었다.

마지막 방문지는 Daiichi-Kobo Associates가 설계한 「동경 전력기술개발」 빌딩을 방문하였다. 지하1층, 지상1층의 건물로 F₅코스중 가장 큰 건물이었으나 담당 안내자의 설명은 이 건물의 건축적인 접근에서의 이해보다는 Energy Saving 측면에서의 물리적인 설명으로 일관되었다.

이중 유리안에 브라인드 설치를 인한 태양광선 조정, 지하층 열조로 이용한 냉난방 등... 설계자의 설명이 부족한 것이 나에게겐 못내 아쉬웠다. 주어진 짧은 시간안에 많은 것을 얻으려 했던 노력이 어느 정도는 채워진 느낌을 받으며 Forum 9으로 돌아오니 까마귀가 반기고 있었다.

〈글: 안중성/예지원 종합건축사사무소〉